

에스트래픽, 3분기 매출액 110억원.. 전년비 12.6% 증가

▶ 3분기 연속 매출 성장 기록

▶ 연내 구축완료 목표인 도로사업과 해외사업 본격화로 매출 지속 성장

<2019-11-08>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(234300, 대표이사 문찬중)이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10억 원, 영업손실 40억 원, 당기순손실 35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.

전년동기대비 매출은 12.6% 증가했으며,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지속되었다.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.4% 증가해 254억 원을 기록했다.

에스트래픽 관계자는 “지능형 교통시스템(ITS), 도로 요금수납 시스템, 하이패스 시스템 등 도로사업 부문 전 사업에서 고르게 매출이 증가했으나 해외 프로젝트들이 다수 시작되어 이에 따른 인력 증가 및 사업 초기 비용으로 영업 적자는 지속되었다”고 전했다.

실제로 에스트래픽은 ▲아제르바이잔(Azerbaijan) 고속도로 요금수납 시스템 구축사업 ▲콜롬비아(Colombia) 메데진시 ITS 구축사업 ▲미국(USA) 워싱턴 DC. 역무자동차 시스템 등 다양한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

한편, 에스트래픽은 연내 구축완료 목표인 도로사업이 다수 있으며, 해외사업의 본격화로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.

<에스트래픽 2019년 3분기 실적>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2018.3Q	2019.3Q	변동액	YoY
매출액	9,730	10,953	+1,224	+12.6
영업이익	-1,543	-3,980	-2,437	적자지속
당기순이익	-2,130	-3,492	-1,362	적자지속